여수·고흥 등 남해안 일대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 급상승

여수 인근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유해성 적조 생물의 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최근 예찰 결과, 여수시 화정면 개도 앞바다에서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의 밀도가 ㎖당 100개체 이상 출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말 삼산면 광도 일원 해역에서 ㎖당 10개체 정도의 유해성 적조 생물이 관측된 적은 있었지만, 100개체 이상 밀도를 보인 것은 올해 처음이다.

여수·고흥 해역은 또 무해성 적조 생물인 규조류 적조의 밀도도 높게 검출됐다. 이 지역의 해역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적조 생물의 생장 수온인 25도를 넘어 27도에 이르고 있어 조만간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조주의보는 적조 생물이 ㎖당 300개체에 이르면 발령된다.

남해수산연구소 정창수 연구관은 "수온과 함께 적조생물 번성의 가장 큰 원인인 염분 농도가 낮아 적조가 아직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조만간 '대마(쓰시마) 난류'가 남해안에 접근하면 적조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 적조로 인해 ▲지난 2003년 176억원 ▲2004년 1억2천만원 ▲지난해 9억7천만원 등 해마다 큰 피해를 입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휴대전화 부당신청·명의도용
'보조금 부작용' 속출

휴대전화 보조금 시행 이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80여건 중 10여건이 휴대전화 명의 도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보조금 제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돼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내용이다.

회사원 이모(30)씨는 "누군가 임의대로 월 2천500원의 교통안내 서비스를 신청했다"며 서부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씨 명의의 휴대전화에 각종 서비스를 무단으로 신청한 이통사 업계 관련자를 조사, 사기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의 각종 부가서비스 명의 도용 가입이 휴대전화 보조금 시행 이후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통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모(33)씨는 "이동통신 업체에서 매달 '의무 가입 부가서비스 지침'을 내려보낸다"며 "부가서비스를 유치하지 않으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금을 줄이는 등 압박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수능 D-100 수험생은 지금

以熱治熱…막판 스퍼트 '후끈'

〈이열치열〉

방학도 휴일도 잊고 자율학습
변덕 大入제도에 "올해 꼭 끝낸다"

2007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D-100'(8일)을 앞두고 광주·전남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방학 중이지만 고3 교실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보충수업 등이 진행되는가 하면, 재수생들의 종합반 학원 교실은 비장감마저 흐른다.

◇학교에서=지난 5일 오후 광주 서석고 3학년 교실. 방학에다 토요일이지만 3학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나와 자습에 열중하고 있다. 방학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일주일 정도가 전부였다. 짧은 방학을 마친 뒤 다시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여름 휴가 분위기에 들떠있다기보다 다가오는 D-100일을 의식한 듯 더 긴장돼 있었다.

서석고 김오자(49) 진학부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희망자만 공부를 하는데도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며 "시험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초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말을 주로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숭일고는 학생들에게 'D-100일부터 하루에 1점씩 올리자'고 독려하고 있다. 3학년 이종민(18) 군은 "실제로 100일 동안 100점을 올릴 순 없겠지만 교실 분위기가 한층 더 긴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에서=재수생들이 찾는 종합반 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대성학원은 지난 4일부터 5일 동안 방학에 들어갔지만 주말과 휴일에도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나와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 학원 신길웅(55) 부원장은 "2008년도 대입부터 제도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런지 올해 꼭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학생들 집중도가 어느 해보다 높다"고 말했다.

고3 학생들과 달리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는 재수생들이 더 절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일등학원 안준호 교무부장은 "최근 4일간 방학을 가졌는데 방학 후에 분위기가 오히려 더 진지해진 것 같다"며 "무더위에도 밤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온라인 입시업체들은 '톡톡' 튀는 'D-100일' 행사로 수험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수능D-100 힘내라 수험생'을 주제로 8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간식 또는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수능 점수 맞혀 유럽여행 가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이투스'(www.etoos.com)에서는 '희망의 메모 채우기'라는 코너를 통해 'D-100을 맞은 자신의 다짐'을 적게 했다. 뽑힌 참가 학생 및 학급에는 모의고사 문제집과 피자 등이 제공된다.

'유웨이에듀'(www.uwayedu.com)는 수능을 100여 일 남겨둔 수험생들이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학습 가이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실력 진단 semi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대여고 3학년 학생들이 '2007년 대입 수능 D-100일'을 사흘 앞둔 지난 5일, 무더위 속 주말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참 〈6900〉 김종두

원룸에 대낮 흉기강도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모 원룸 3층 M(여·27)씨 집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못건진 컨테이너에 그물 잇따라 찢겨

여수 어민, 대책위 구성 피해보상 요구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영향으로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컨테이너 대부분이 인양되지 않아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권현망·유자망·이동성 구획어업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 업종별 어업협의회'는 '어민 대책위'(위원장 노순기)를 구성하고 행정기관에 컨테이너 수색·수거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여수 인근 해안에서 조업 중인 멸치잡이 권현망 어선 중 일부 어선들의 그물이 지난달 10일 바다에 떨어진 뒤 인양되지 않은 컨테이너에 걸려 찢기는 사고가 20여 건 발생했다. 그물 피해 지역은 컨테이너가 빠진 여수 남면 소리도 해상을 비롯한 인근 금호도·선죽도·초도·삼산면·거문도 해상 일대다. 특히 이 일대는 멸치의 황금어장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대책위는 "아직까지 인양되지 않은 컨테이너의 수색·수거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7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발송키로 했다. 또 컨테이너 선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수색·수거작업 비용과 피해 보상 등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여수항으로 입항하던 싱가폴 선적 컨테이너선 등에서는 모두 182개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졌으며, 이 가운데 25개만 인양됐을 뿐 나머지 157개는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

▲권현망=남해 연안의 대표적인 어법으로 멸치를 주로 잡는다. 앞 날개(오비기) 부분과 안날개(수비) 및 자루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어탐선·가공선·운반선·전마선·본선(그물배)으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한다.

교회 헌금 '낚시질'…15만3,000원 훔쳐

쌍나팔

○…속칭 '낚시질' 수법으로 교회 헌금함의 돈을 훔치던 남자가 목사에게 덜미를 잡혀 경찰서행.

○…광주 서부경찰은 6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J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청테이프를 붙인 철제 옷걸이를 헌금함에 넣어 15만3천원을 빼낸 혐의(절도)로 박모(36·주거부정)씨를 붙잡아 조사 중.

○…박씨는 광주·전남 교회를 돌며 헌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복역하다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귀띔.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